



열린 가슴. 열린 마음. 열린 문.

한인연합감리교회®

# 지역화:

## 모든 문화권에서 효과적인 사역

지역화를 통해 연합감리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제자를 삼고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각자가 속한 지역사회를 가장 잘 섬길 수 있다.



### 지역화란 무엇인가?

- 지역화는 교회가 속한 각 지역의 특수 환경에서 선교와 사역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준다. 지역화는 이미 해외지역총회에서 시행되고 있으며, 지역화를 통해 미국에도 이러한 기능이 도입될 것이다.
- 지역화는 전 세계 연합감리교인들이 협력하여 개발했다. 압도적인 다수의 총회 대의원들이 지역화를 채택했다.
- 미국에 1개, 아프리카, 유럽, 필리핀에 8개 등 총 9개의 대지역총회가 연합감리교회를 구성하게 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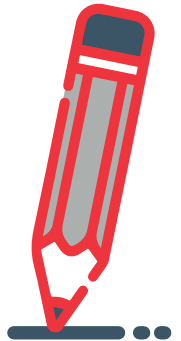
### 대지역연회가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?

- 자체 헌법을 만들거나 총장정에 포함된 헌법에 위배되는 정책을 채택할 수 없다.
- 교리적 기준, 우리의 신학적 과제,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역 또는 사회적 원칙을 변경할 수 없다.



### 대지역연회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?

- 대지역연회 자체 장정, 찬송가, 예배서 및 기타 전례 자료의 초안을 작성하고 출판할 수 있다.
- 필요와 자원에 따라 안수 및 인허받은 사역을 위한 요건을 설정할 수 있다.
- 평신도 회원 자격에 대한 기준 설정할 수 있다.
- 각국의 문화적 상황과 법률에 부합하는 결혼식, 장례식 및 기타 예식을 개발할 수 있다.
- 연회, 지방회 또는 연회를 재조직하여 선교적 필요에 가장 잘 부응하고 자체 사법 법원을 소집할 수 있다.
- 연회와 협력하여 정책과 관행이 각국의 법률에 부합하도록 한다.



###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?

- 지역화 계획은 연합감리교회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. 헌법 개정은 총회의 2/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하는데, 이미 통과 되었다.
- 이제 개정안은 연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. 개정안은 모든 연회의 투표권을 가진 회원 2/3의 지지를 받아야 하며, 이 과정은 2026년까지 지속될 것이다.
- 총감독회는 개정안이 교회법이 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면 이를 발표할 것이다.

“지역화는 연합감리교회의 전 세계적인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입니다. 지역화는 교회의 증거를 확장하고,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며, 연대성을 강화하고, 각 선교적 상황에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.”

- 트레이시 스미스 말론 감독, 총감독회 회장